

효성, 영업이익 14% 감소 311억원

전반적 상황 부진에 환율하락으로 ... 4/4분기 스판덱스·PP 호조 기대

효성은 3/4분기에 매출 1조1820억원, 영업이익 311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11월2일 밝혔다.

매출은 전년동기대비 2.8%, 영업이익은 13.6% 감소한 것이며, 2/4분기와 비교해서도 매출은 1.4%, 영업이익은 28.0% 줄어든 것이다.

효성은 “전반적인 상황 부진 속에서 환율하락의 영향을 받은 결과”라고 실적 악화의 배경을 설명하고 “2005년 환율로 치면 매출은 오히려 증가한 셈”이라고 덧붙였다.

효성은 또 “4/4분기에는 스판덱스 매출 호조, 화학 분야의 PP(Polypropylene) 실적 증가세, 무역 분야 선전 등에 힘입어 매출이 1조2000억원 안팎에 이르는 등 실적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”고 강조하고 “다만, 환율과 원재료 가격 동향 등이 변수가 될 것”이라고 전망했다.

특히, “3/4분기 경상이익은 170억원으로 2005년 3/4분기 적자에서 2006년 3/4분기 흑자로 전환됐다”면서 “스판덱스 사업 호조 등으로 중국 관련 지분법 이익이 개선됐기 때문인데 시장에서는 여기에 의미를 많이 두고 있다”고 말했다. (서울=연합뉴스 고형규 기자) <저작권(c)연합뉴스-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6/11/02>